

雇 備 職 業 能 力 開 發 研 究  
第19卷(1), 2016. 4, pp. 49~73  
© 韓 國 職 業 能 力 開 發 院

##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한 직무만족도에 대한 가정 내 진로교육 효과\*

라종민\*\* · 이기중\*\*\*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의 질 향상과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특성 및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 고졸자 취업진로자료(HSGES)를 사용하여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정 내 진로교육, 진로성숙도,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첫째, 가정 내 진로교육은 진로성숙도를 부분매개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 내 진로교육은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내 진로교육은 직무만족도 하위영역 중 경제영역에 대한 영향은 큰 반면 대인관계영역에서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진로성숙도는 가정 내 진로교육과 마찬가지로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직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미래 직업에 대한 가정 내 진로교육의 긍정적 측면을 밝히면서 학교 및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는데 그 함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주요어 : 가정 내 진로교육, 구조방정식, 직무만족도, 진로성숙도,  
특성화고 고등학생

투고일: 2015년 10월 12일, 심사일: 2015년 12월 10일, 게재확정일: 2016년 02월 01일

\* 본 논문은 2014년도 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

\*\* 제1저자,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rem2002@gmail.com)

\*\*\* 교신저자,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rhee0408@kookmin.ac.kr)

## I. 서론

급변하는 오늘날 현대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젊은 청소년들에게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자신들의 미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진로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할 시간과 여력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엄태영·박은하·주은수, 2011). 이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을 할 여력 없이 무조건적으로 대학에 진학을 하고 졸업 후 자신의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요구하는 자리에 취업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김주섭, 2005; Rumberger, 1981).

대졸 청년 실업 심화와 고졸 기능 인력의 부족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과잉교육현상은 진로교육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시켰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2008년 ‘고졸시대 정착을 위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육성방안(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노동부, 2008)’을 발표·시행하였다(남미자·김희연·이수지·이주영, 2013; 신희경·김우영, 2005; 엄태영 외, 2011).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그동안 끊임없이 상승해 온 특성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대학진학률을 낮추고 졸업 후 취업을 상승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률 상승과는 별도로 이직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 실업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등 직업교육 이수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졸업 후 선택한 직장에 대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들(김동규, 2012; 남미자 외, 2013; 노경란·허선주, 2012; 박광준, 2009; 신희경·김우영, 2005; 엄태영 외, 2011)은 효과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정과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박광준(2009)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적성·흥미뿐만 아니라 능력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진로교육과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여러 선행연구들(김강호, 2009; 김동규,

2012; 노경란·허선주, 2012)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졸업 후 선택한 직장에 대한 직무만족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3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High school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HSGES)를 이용하여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인지하는 진로성숙도와 직무만족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진 진로교육의 자료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내생변수(직무만족도)에 대해서 외생변수(가정 내 진로교육)가 가지는 직접효과와 매개변수(진로성숙도)를 통한 간접효과를 실질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개발과 시행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유형에 따른 진로교육에 영향을 밝힌 많은 선행연구들(신희경·김우영, 2005; 엄태영 외, 2011)이 제시해 주는 이론적 토대위에 좀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받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 진로성숙도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과거 특성화고 학생들은 진로선택에 있어 가계소득향상, 고학력자 수요증가,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의식 부재로 인해 졸업 후 대학으로의 대부분 진학을 선택했다. 한국교육개발원(2013)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도에는 특성화고[실업고] 졸업생 중 42.0%가 대학으로 진학을 했으나 2008년 ‘고졸시대 정착을 위한 특성화고·마스터고 육성방안’ 발표이후 2009년에 73.7%가 대학으로 진학해 대학진학률이 정점을 이루었다.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던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대학진학률은 2009년을 정점으로 서서히 감소하여 2013년에 이르러 47.4%로 감소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3). 이러한 결과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졸업 후 대학진학보다는 취

업으로의 유입이 더 큰 현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중등 직업교육 이수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의 취지가 학교현장에 잘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졸업 후 대학진학과 취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진로선택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다. 특성화고 졸업 후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들은 본인들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대학으로 진학하기 보다는 여전히 대학만 진학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남, 2013; 권재기·김진호, 2011). 또한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을 하는 학생들도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직업을 선택하기 보다는 자신들 주변에서 주어지는 직업을 편의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권재기·김진호, 2011; 신희경·김우영, 2005).

특성화고 졸업생들에게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은 결국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 후 잦은 이직을 야기하고 결국 고용비용의 증가 및 인재확보의 어려움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강경중·김종우·허영준, 2007; 권재기·김진호, 2011; 정인수·남재량·이승우, 2006). 선행연구들(강경중 외, 2007; 정인수 외, 2006)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한 학생들의 퇴사율은 대학 졸업 후 취업한 학생들의 퇴사율 보다 약 2배정도 더 높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유지율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김종우, 김형만, 장명희, 최수정, 허영준(2013)의 연구는 졸업 당시의 취업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취업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취업 전 생각했던 직장의 전반적 근무환경과 실제 근무환경(근로조건과 작업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가 크다는 것을 의미해 이에 대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직업에 대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와 학교를 둘러싼 주변 환경 그리고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정 내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끊임없이 대두되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진로성숙도와 직무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재기·김진호, 2011; 김성남, 2013; 남미자 외, 2013; 배상훈·김효선·김국군, 2011; 신희경·김우영, 2005; 오현석·배진현·이상은·장현진, 2010; 엄태영 외, 2011). 오현석 외(2010)의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인문계 학생들보다 직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보다 많이 접하고 체험할 기회가 높아 졸업 후 진로성숙도와 직무만족도가 높다고 언급

하고 있다. 하지만 특성화고 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와 직업교육을 경험한 학생일수록 진로결정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충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가정 내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권재기·김진호, 2011; 김성남, 2013; 신희경·김우영, 2005).

현재 우리나라 특성화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미래직업에 대한 뚜렷한 자신감과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특성화고로 진학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나 집안형편에 의해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영향력이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논의되어왔다(노경란·허선주, 2012; 배상훈 외, 2011; 신재순, 1998; 이은희, 2003).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노경란·허선주, 2012; 신재순, 1998; 신희경·김우영, 2005; 이은희, 2003)에 의하면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정 내 진로교육은 진로에 대한 부모와의 대화와 진로에 관련된 정보활동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성화고 학생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하고 부모와 함께 직업체험기관(잡월드, 박람회)을 방문하여 진로에 관련된 정보를 찾는 활동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희경과 김우영(2005)의 연구결과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시간은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신재순(1998)과 이은희(2003)의 연구에서는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의 가정환경은 경제적·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시간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미래직업선택에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은 부모와 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높여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다(김강호, 2009; 남경민·유성경·하정·강혜원·곽형선, 2010; 박효희·성태제, 2008; Flouri & Buchanan, 2002). 박효희와 성태제(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에 의한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 보다는 부모와 자녀 간의 심리적·정서적 유대감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Flouri와 Buchanan (2002)의 연구는 부모의 문화자본수준(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 학력 등)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나친 진로압력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김강호(2009)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진로성숙도에 대한 가정

에서의 진로교육을 영향력을 언급하였다. 즉,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시간과 같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진로성숙도뿐만 아니라 직무만족도도 같이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신희경·김우영, 2005; Vaden-Kiernan & McManus, 2005).

직무만족도는 개인이 업무에 있어 심리적, 생리적, 환경적 조건 등 종합적 활동에서 느껴지는 것으로 동료, 개인의 신념, 가치, 욕구에 따라 긍정·부정적 감응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남미자 외, 2013). 따라서 직무만족도는 직업 활동 자체에 관련된 일의 가치, 근무환경, 장래성과 같은 여러 요인에 대한 개인적 경험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종래의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업교육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라는 일반적이고 소극적 교육의 형태를 띠었다면 이제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자아정체감 향상뿐만 아니라 취업과 동시에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진로성숙도와 직무만족도를 포함한 좀 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하지만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진로교육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두 요인들 간의 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직관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남미자 외, 2013).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가정 내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진로성숙도와 직무만족도에 대하여 가정 내 직업교육의 효과성을 알아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졸업생이 받은 가정 내 진로교육을 외생변수로 하였으며, 진로성숙도를 매개변인으로, 직무만족도는 내생변수로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가정 내 진로교육과 진로성숙도,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아래의 연구가설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가정 내 진로교육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2. 가정 내 진로교육은 직무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3. 진로성숙도는 직무만족도를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4. 가정 내 진로교육과 직무만족도 관계에서 진로성숙도는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직업훈련,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등의 고용정책 수립을 위하여 수집한 2013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HSGES)자료를 사용하였다. HSGES 설문조사에는 층화계통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5,149명의 특성화고 졸업생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응답이 완료되지 않은 자료와 결측값을 완전제거법(Listwise deletion method)을 사용하여 최종 324명의 응답만을 사용하였다. 324명 중 남학생이 186명(57.4%), 여학생이 138명(42.6%)로 나타났으며 특성화고 출신이 245명(75.6%), 종합고 출신이 20명(6.2%), 마이스터고 출신이 59명(18.2%)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들의 가정 내 진로교육, 진로성숙도,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2013 HSGES 자료를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에서 언급한 영역들이 응답자들의 인식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측정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의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analysis)분석과 베리맥스(Varimax)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유치(Eigenvalue)가 1 이상인 요인과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50 이상 개별 문항(Matsunaga, 2010)만을 선택하였으며 채택된 문항의 문항 간 내적일치관성은 Cronbach's  $\alpha$ 로 측정하였다.

##### 가. 가정 내 진로교육

가정에서 발생하는 진로교육은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시간과 형태로 이루어지기 보

다는 다양한 형태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HSGES에서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진로교육에 관한 3문항으로 가정 내 진로교육의 영역으로 한정하였다. 2013 HSGES에서 제공하는 가정 내 진로교육에 관한 3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 나의 적성, 흥미, 진로 등에 대한 대화. 둘째, 가족과 함께 직장 또는 직업체험기관(잡월드, 박람회 등)방문. 셋째, 가족과 함께 진로 관련 상담 및 검사. 이들 문항은 5점 리커트(Likert)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점수가 높으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는 가정 내 진로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가정 내 진로교육을 측정하기 위한 이들 3문항의 문항 내적일관성은 .82로 높게 나타났으며 측정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measurement)는 0.88로 나타났다.

#### 나. 진로성숙도

HSGES에서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진로성숙도를 6점 리커트 척도 2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들 문항은 긍정적일수록 6점, 부정적일수록 1점을 응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27문항 중 5문항(L3, L7, L11, L14, L15)은 역산 문항으로 분석에 앞서 역코딩이 필요하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적재량이 기준값(.05)보다 작은 4문항(L10, L11, L16, L17)을 제외한 문항의 내적일관성은 .88이며 측정의 표준오차는 5.03으로 나타났다. 23문항으로 구성된 진로성숙도의 Kaiser-Meyer-Olkin(KMO)값이 .92로 높게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성형 검정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chi^2_{351} = 4507.81$   $p = <.01$ ) 4개의 요인으로 재구성된 진로성숙도의 첫 번째 요인인 '정보'요인으로 10문항(L1, L2, L5, L6, L9, L18, L19, L23, L26, L27)으로 구성되었고 이들 문항의 내적일관성은 .91로 높게 나타났으며 측정의 표준오차는 2.64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인 '자기평가'는 5문항(L4, L8, L12, L13, L25)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내적일관성은 .81로 나타났으며 측정의 표준오차는 1.77로 나타났다. 세 번째 요인인 '자기주장'은 4문항(L20, L21, L22, L24)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의 내적일관성은 .78로 나타났으며 측정의 표준오차는 1.60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인인 '배금주의'는 4문항(L3, L7, L14, L15)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내적일관성은 .76으로 나타났고 측정의 오차는 2.28로 나타났다(표 1).

<표 1> 진로성숙도에 대한 요인분석

구분	문항	요인			
		정보	자기 평가	자기 주장	배금 주의
L1	내가 원하는 직업(전공)을 갖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66			
L2	장래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다	.62			
L5	내가 관심 있는 진로나 전공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적이 있다	.63			
L6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을 해 본적이 있다	.62			
L9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72			
L18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한다	.71			
L19	나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계획을 세운다	.60			
L23	내가 알고 있는 진로 지식이 정확한지 알아 본적이 있다	.68			
L26	나의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차별적으로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다	.55			
L27	나는 내 또래에 비해 뚜렷한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다	.64			
L4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51		
L8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65		
L12	내가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66		
L13	나의 성격에서 나쁜 점이 무엇인지 안다		.62		
L25	내가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50		
L20	진로선택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			.64	
L21	나는 미래에 어떤 직업이 유망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58	
L22	어떤 직업을 가지는가가 미래의 나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57	
L24	나는 어른들의 결정보다는 내가 원하는 진로를 택할 것이다			.65	
L3*	직업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75
L7*	직업 자체가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은 아니다				.50
L14*	돈을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다				.72
L15*	진로선택은 어른들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좋다				.68
	고유값(Eigenvalue)	5.45	3.04	2.82	2.26
	분산설명(%)	20.20	11.27	10.45	8.38

\* 역코딩 문항으로 분석에 앞서 역코딩하였음

## 다. 직무만족도

HSGES에서는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직무만족도를 5점 리커트 척도 1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직무만족도 척도의 문항은 긍정적일수록 5점, 부정적일수록 1점을 취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들 문항의 내적일관성은 .94로 높게 나타났으며 측정의 표준오차는 2.52로 나타났다. 표본의 적절성을 보기위한 KMO는 .92로 높게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성형 검정결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_{78} = 2958.99$   $p = <.01$ ).

<표 2> 직무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구분	문항	요인		
		만족	경제	대인관계
J5	개인의 발전가능성	.80		
J8	인사체계_승진제도	.71		
J9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73		
J10	하고 있는 일의 자율성과 권한	.67		
J11	능력개발기회_교육훈련제도	.77		
J1	임금 또는 소득		.78	
J2	고용의 안정성		.68	
J3	근무환경_시설, 안전, 위생상태 등		.68	
J4	일하는 시간_근로시간, 근무일수		.66	
J12	하고 있는 일(업무)에 대한 전반적 만족여부		.51	
J13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여부		.56	
J6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88
J7	복리후생제도_4대보험, 자녀보호지원			.53
	고유값(Eigenvalue)	4.37	3.20	1.66
	분산설명(%)	33.65	24.66	12.77

직무만족도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고 첫 번째 요인은 '만족'으로 5문항(J5, J8, J9, J10)으로 측정되고 이들 문항의 내적일관성은 .90으로 나타났으며 측정의 표준오차는 1.47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경제'요인으로 6문항(J1, J2, J3, J4, J12, J13)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내적일관성과 측정의 표준오차는 각각 .89, 1.49로 나타났다. 마지막 요인은 '대인관계'로 2문항(J6, J7)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문항의 내적일관성은 .61로 다소 낮게 나타났고 측정의 표준오차는 3.12로 나타났다(표 2).

## IV. 연구결과

### 1. 특성화고 졸업생의 가정 내 진로교육, 진로성숙도 및 직무만족도 수준

<표 3>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정 내 진로교육, 진로성숙도, 직무만족도에 관한 기술 통계(평균, 표준편차)를 성별(남·여), 학교유형(특성화고, 종합고, 마이스터고)별로 보여 주고 있다. 남학생은 가정 내 진로교육( $t(322) = 0.49, p = .62$ )과 직무만족도( $t(322) = -0.47, p = .63$ )에서 여학생보다 평균이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진로성숙도( $t(322) = .83, p = .40$ )에서는 여학생보다 평균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성별에 따라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표 3> 성별, 학교유형별 기술통계

구분		가정 내 진로교육		진로성숙도		직무만족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성별	남학생 (n=186)	4.13	0.71	3.79	0.58	3.89	0.84
	여학생(n=138)	4.10	0.67	3.82	0.47	3.81	0.72
학교 유형	특성화고(n=245)	4.11	0.68	3.76	0.53	3.81	0.78
	종합고(n=20)	3.58	0.72	3.70	0.59	3.33	0.72
	마이스터고(n=59)	4.36	0.62	4.04	0.49	4.24	0.70

학교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 출신 학생들이 가정 내 진로교육, 진로성숙도, 직무만족도에서 특성화고 및 종합고 출신 학생들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성화고 출신 학생들의 가정 내 진로교육, 진로성숙도, 직무만족도의 평균이 종합고의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진로교육, 진로성숙도, 직무만족도에 대하여 학교유형별 차이를 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해야 하지만 학교유형별 사례수 차이가 크고 본 논문의 연구문제와 무관하여 실시하지 않았다.

<표 4>는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대한 빈도를 제시해 주고 있다. 200~300만원 미만이 81명(2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100~200만원 미만과 300~400만원 미만이 각각 72명(22.22%)로 나타났다.

<표 4> 보호자의 월평균 총소득

구분	빈도	%
100만원 미만	15	4.62
100~200만원 미만	72	22.22
200~300만원 미만	81	25.00
300~400만원 미만	72	22.22
400~500만원 미만	36	11.11
500~600만원 미만	17	5.24
600~1,000만원 미만	10	3.08
1,000만원 이상	8	2.46
소득없음 및 기타	13	4.10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가정 내 진로교육, 진로성숙도, 직무만족도에 대하여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정규성을 검증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분석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댓값이 3과 8을 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정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Kline, 2005; Lei & Lomax, 2005).

<표 5> 가정 내 진로교육, 진로성숙도, 직무만족도 기술통계(N=324)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가정 내 진로교육		4.12	0.69	-0.36	-0.65
	적성·흥미	4.21	0.71	-0.42	-0.56
	직업체험	4.03	0.90	-0.61	-0.10
	상담·검사	4.14	0.86	-0.78	0.64
진로성숙도		3.81	0.53	-0.17	0.03
	정보	4.57	0.88	-0.78	1.01
	자기평가	4.78	0.81	-0.54	0.09
	자기주장	4.70	0.85	-0.61	0.65
	배금주의	3.58	1.16	-0.02	-0.45
직무만족도		3.85	0.79	-0.56	0.22

구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만족	3.75	0.90	-0.59	0.12
경제	3.86	0.83	-0.62	0.17
대인관계	4.09	0.84	-0.87	0.61

## 2. 특성화고 졸업생의 가정 내 진로교육과 진로성숙도 및 직무만족도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실시한 피어슨 적률상관관계 분석결과 가정 내 진로교육, 진로성숙도, 직무만족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가정 내 진로교육과 진로성숙도와의 피어슨 상관관계는  $r = .39(p < .01)$ 로 나타나 가정 내 진로교육이 진로성숙도의 변량을 약 15.2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내 진로교육과 직무만족도의 피어슨 상관관계는  $r = .38(p < .01)$ 로 나타나 가정 내 진로교육이 직무만족도 변량을 약 14.4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와 직무만족도와의 피어슨 상관관계는  $r = .30(p < .01)$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진로교육, 진로성숙도, 직무만족도 변인들 간에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6> 가정 내 진로교육, 진로성숙도, 직무만족도 상관관계(N=324)

구분	가정 내 진로교육	진로성숙도	직무만족도
가정 내 진로교육	1.00		
진로성숙도	.39**	1.00	
직무만족도	.38**	.30**	1.00

\*  $p < .05$ , \*\*  $p < .01$

## 3. 연구모형의 적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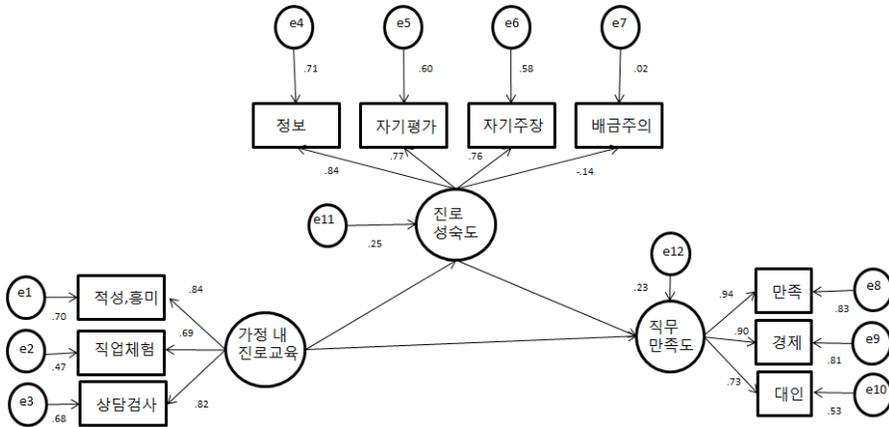
가정 내 진로교육이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 1]에 대하여 표준카이제곱치( $\chi^2$ ), 비교부합지수(Comparative Fit Index:

CFI), 비표준부합지수(Tucker-Lewis Index: TLI), 기초부합지수(Goodness of Fit Index: GFI), 근사원소평균자승오차(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표준부합지수(Normed Fit Index: NFI)를 사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는데 있어 표준카이제곱치( $\chi^2$ )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을 고려해 결과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chi^2$ 은  $\chi^2$ 이 작을수록 유의확률값이 커지게 되는데 보통 유의확률이 .05보다 작아야 제시된 모형이 적합하다고 한다. 증분 적합도지수인 NFI, CFI, TLI의 값이 .90이상이면 모형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절대 적합도지수인 GFI의 값이 .90이면 제시된 모형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RMSEA의 값이 .05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 .10이하이면 보통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평가한다(Bentler & Bonett, 1980; 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진로성숙도의 부분매개를 허용하는 연구모형과 가정 내 진로교육에서 진로성숙도에 대한 직접적 관계를 설정하지 않은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chi^2$ , CFI, TLI, GFI, RMSEA, NFI)값들은 <표 7>에 나타나고 있다.

<표 7>에 제시된 결과는  $\chi^2$ 를 제외한 모든 적합도 지수(CFI, TLI, GFI, RMSEA, NFI)값들이 기준값을 넘고  $\chi^2/d.f$  값이 허용오차 범위에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chi^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제시된 모형을 해석하는데 있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표 7>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N=324)

구분	$\chi^2(df)/p$	$\chi^2/d.f$	CFI	TLI	GFI	RMSEA	NFI
완전매개	92.58(33)/.00	2.80	.96	.94	.94	.07	.93
부분매개	65.50(32)/.00	2.17	.97	.96	.95	.06	.95
적합기준	$p>.05$	$\leq 5$	$\geq .90$	$\geq .90$	$\geq .90$	$\leq .10$	$\geq .90$
판정결과	부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그림 1] 가정 내 진로교육, 진로성숙도,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모형

가정 내 진로교육, 진로성숙도,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가 매개변수들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지 완전 매개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가정 내 진로교육에서 직무만족도에 대한 직접 경로가 포함된 모형(부분매개)과 그렇지 않은 모형(완전매개)의 적합도가 높은지 살펴보았다. 완전매개모형과 부분매개모형의  $\chi^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Delta\chi^2(1) = 28.08$ 으로 나타나  $\chi^2$ 의 임계치 3.84보다 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완전매개에서 제외된 경로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직무만족도에 대한 가정 내 진로교육의 관계는 부분매개 모형이 완전매개 모형보다 더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 4. 경로분석

완전매개와 부분매개모형 간의  $\Delta\chi$  차이로 결정된 본 연구의 연구모형(그림 1)을 바탕으로 실시된 경로분석의 결과가 <표 8>에 나타나있다. 가정 내 진로교육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크기(직접효과 = .50)는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크기(직접효과 = .35)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성숙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19로 다소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성화고 학생들과 부모들 사이에 발생하는 가정 내 진로교육이 졸업 후 취업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무만족도와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데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표 8>은 가정 내 진로교육, 진로성숙도,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들 요인들의 하위영역에 대한 효과크기 또한 제시하고 있다. 가정 내 진로교육은 상담·검사(직접효과=.82)와 적성·흥미(직접효과=.85)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치고 상대적으로 직업체험(직접효과=.69)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성숙도는 정보(직접효과=.84), 자기평가(직접효과=.77), 자기주장(직접효과=.76), 그리고 배금주의(직접효과=-.14) 순위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성숙도가 배금주의와는 부(-)적 관계가 놓인 것으로 나타나 진로성숙도가 높은 학생들은 자신들의 진로 또는 직업선택에 있어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직무만족도는 만족(직접효과=.91), 경제(직접효과=.89), 대인관계(직접효과=.73) 순위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 특성하고 학생들 중 직무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직무만족에 대한 원인을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기보다는 자신내부에서 찾는 경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8> 가정 내 진로교육이 진로성숙도 및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직·간접효과(N=324)

구분	직접효과		부트스트리핑(Bootstrapping)			t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가정 내 진로교육	진로성숙도	5.70	.50	0.85	4.21	7.63	7.75**
	직무만족도	2.16	.35	0.58	0.98	3.17	4.83**
	상담·검사	1.00	.82				
	적성·흥미	0.89	.85	0.06	0.76	1.02	14.39**
	직업체험	0.94	.69	0.07	0.77	1.07	12.34**
진로 성숙도	직무만족도	0.10	.19	0.05	0.11	0.21	2.67**
	정보	1.00	.84				
	자기평가	0.42	.77	0.03	0.36	1.00	13.81**
	자기주장	0.35	.76	0.03	0.28	0.50	13.68**
	배금주의	-0.08	-.14	0.04	-0.17	0.40	-2.30*
직무 만족도	만족	1.00	.91				
	경제	1.09	.89	0.06	0.96	1.21	20.56**
	대인관계	0.29	.73	0.02	0.25	0.34	15.67**

		간접효과		부트스트리핑(Bootstrapping)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95%신뢰구간	
					하한	상한
가정 내 진로교육	정보	5.71**	.42	0.85	4.21	7.63
	자기평가	2.41**	.39	0.36	1.74	3.20
	자기주장	2.00**	.38	0.27	1.52	2.77
	배금주의	-0.49*	-.07	0.26	-1.09	-0.02
	만족	2.76**	.40	0.41	1.99	3.62
	경제	3.02*	.40	0.50	2.04	4.07
	대인관계	0.82**	.32	0.14	0.55	1.13
	직무만족도	0.59*	0.09	0.32	0.10	1.42
직무 만족도	만족	0.10*	.17	0.51	0.01	0.21
	경제	0.11*	.17	0.57	0.01	0.23
	대인관계	0.03*	.13	0.01	0.00	0.06

\* $p < .05$ , \*\* $p < .01$

〈표 8〉은 가정 내 진로교육이 진로성숙도와 직무만족에 대한 직접효과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가정 내 진로교육은 진로성숙도와 직무만족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정 내 진로교육이 진로성숙도의 배금주의에 부(-)적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진로교육을 많이 받은 특성화고 학생은 직업선택에 있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을 충분히 평가한 후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9〉는 내생변수가 왜성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다중상관자승(Squared multiple correlation)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정 내 진로교육은 직무만족도(22%) 보다 진로성숙도(25%)를 다소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에 나타난 결과는 가정 내 진로교육은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성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정 내 진로교육은 적성·흥미, 직업체험, 상담·검사를 각각 70%, 47%, 6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의 진로교육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적성·흥미 및 상담·검사에 치우쳐 있으며 직업체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성숙도는 정보(71%), 자기평가(59%), 자기주장(59%), 배금주의(1%)순위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에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무만족도는 만족, 경제, 대인관계를 각각 83%, 80%, 5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느끼는 내부적 동기에 대한 설명이 높고 대인관계(상사와의 관계)와 같은 외부적 요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9> 다중상관자승

구분		다중상관자승
가정 내 진로교육	진로성숙도	.25
	직무만족도	.22
	적성·흥미	.70
	직업체험	.47
	상담·검사	.68
진로성숙도	정보	.71
	자기평가	.59
	자기주장	.59
직무만족도	배급주의	.01
	만족	.83
	경제	.80

## V. 논의 및 결론

### 1. 기술통계

특성화고 학생의 가정 내 진로교육, 진로성숙도, 직무만족도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려는 본 연구의 노력은 교육 및 인적자원 활용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력 간 수급불균형을 해소 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가정 내 직업교육이 진로성숙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내 진로교육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진로교육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만큼 가

정 내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정 내 진로교육은 진로성숙도의 하위영역 중 '정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진로교육의 내용이 특성화고 학생들이 미래에 가지게 될 직업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체험보다는 직업과 직무에 관련된 정보에 크게 치우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진로교육 중 부모와 학생 간의 대화 속에서 학생의 미래진로에 대한 관심이 클수록 진로의식이 높다는 선행연구(김성경, 2008; 배상훈 외, 2011)의 결과와 큰 틀에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학교현장을 통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로결정이 약하다는 선행연구(배상훈 외, 2011; 신희경·김우영, 2005)의 결과로 볼 때 현재 특성화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이 '정보'에 치우쳐 있어 학생들의 적성·흥미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가정 내 진로교육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직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 내 진로교육은 직무만족도의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보다 '만족과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효과적인 진로교육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진로결정력을 높이고 진로성숙도와 직무만족도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엄태영 외(2011)의 연구결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풍부한 가정 내 진로교육을 받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직업에 대한 만족도와 경제적 보상에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인관계에 대한 가정 내 진로교육의 효과가 다소 약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정 내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적성·흥미를 발견하고, 진로관련 상담 및 검사에 치우쳐 있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업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다양한 대인관계를 원만히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인성과 관련된 가정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진로성숙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진로성숙도는 직무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성숙도가 높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자신들의 적성과 전공에 일치된 일자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직무만족도를 높인다는 이효남과 모화숙(2014)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객관적 관점에서 자신의 위치를 고려한 후 선택한 진

로에 관한 직무에 대한 만족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 스스로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학교·가정에서 보다 폭넓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가정에서의 진로교육이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결과 진로성숙도를 매개로 한 가정 내 진로교육의 관계는 부분매개 모형이 완전매개 모형보다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이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직무만족도를 직접적으로 높일 뿐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고 이는 결국 직무만족도를 높인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은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인다는 선행연구들(신희경·김우영, 2005; Vaden-Kiernan & McManus, 2005)의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를 둘러싼 학교환경에 맞게 진로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학교와 가정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하여,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오늘날 학생들이 경험하고, 생각하고, 원하는 진로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의 중요성을 가정이라는 영역으로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으나 추후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가정 내 진로교육에만 한정하여 학교와 더불어 특성화고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효과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3문항으로 구성된 가정 내 진로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을 포함하는데 내재적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측정도구의 개발과 더불어 특성화고 등학생들의 진로성숙도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선배의 영향, 교사의 영향, 학교의 위치)등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가정 내 진로교육과 진로성숙도,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제시하려고 시도한 본 연구는 특성화고 졸업자 중 취업자만을 분석하였다(censoring). 이러한 시도는 특성화고 졸업생들 중 취업을 한 특정 집단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내재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전체 특성화고 졸업생들에게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

여 이를 반영한 추후 연구가 수행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직무만족도는 취업 분야 또는 특성화고 전공과 현 직업과의 전공일치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변수를 통제한 후, 추후 연구를 통해 직무만족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급변하는 사회에 대처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부는 특성화, 마이스터고와 같이 학교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 방향(배상훈 외, 2011; 서명범, 2008)으로 직업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서로 다른 학교유형(특성화고, 종합고, 마이스터고)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추후 연구를 통해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업선택의 문제를 생애발달적 측면으로 이해하고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내재적 요소뿐만 아니라 가정 내 진로교육과 같은 외재적 요소를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정 내 진로교육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위치(학력, 직업 등)가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배상훈 외, 2011; 신희경·김우영, 2005; 최수정, 2007)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3가지 영역(적성·흥미, 직업체험, 상담·체험)으로 한정된 가정 내 진로교육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질적, 양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교육이 새로운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학생들과는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추후 연구를 통해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노동부(2008). 『전문계고 발전을 선도하는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계획』 (2008.7.8.).
- 강경중·김종우·허영준(2007). 『전문계 고등학교 출신자에 대한 산업체 인식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제26권 제2호, 19~39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권재기·김진호(2011). 『청년기 직업결정의 변화양상에 따른 진로특성 변화 및 예측: 대학 4년간의 진로고민·고등학교 3학년 때의 진로특성』,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4권 제1호, 49~74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강호(2009). 『전문계 고등학교 진로지도 활동이 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제28권 제4호, 183~200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김동규(2012). 『특성화고 선택의 자발성이 고졸청년층 노동시장성공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제31권 제3호, 25~42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김성경(2008). 『고등학교 청소년의 진로성숙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성별 및 학교계열 별 진단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5권 제6호, 145~170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성남(2013).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발달 유형과 개인특성 및 진로지도 만족도의 관계』,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제16권 제2호, 179~204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종우·김형만·장명희·최수정·허영준(2013).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주섭(2005). 『청년층의 고학력화에 따른 학력과잉 실태 분석』, 『노동정책연구』, 제5권 제2호, 1~29쪽, 한국노동연구원.
- 남경민·유성경·하정·강혜원·곽형선(2010). 『학업우수 남자고등학생의 진로결정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제11권 제2호, 775~793쪽, 한국상담학회.
- 남미자·김희연·이수지·이주영(2013). 『특성화고의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일치도를 매개로 하여』,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제16권

- 제3호, 29~57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노경란·허선주(2012). 『특성화고졸 취업자의 교육 및 전공불일치와 노동시장 성과』, 『직업능력개발연구』, 제15권 제2호, 25~49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광준(2009). 『특성화 고등학교의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 상업계열 특성화 고등학교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효희·성태제(2008). 『성별 진로성숙도 변화에 있어 부모-청소년 자녀 유대가 미치는 중단적 매개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제19권 제1호, 117~142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상훈·김효선·김국균(2011). 『마이스터고 학생의 가정배경 및 정서적·학습심리적 특징 분석: 전문계 및 일반계고 학생과 비교를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제19권 제3호, 149~175쪽, 한국열린교육학회.
- 서명범(2008).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육성방안 및 과제』, 『한국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77~110쪽, 한국교육연구소.
- 신재순(1998). 『상업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희경·김우영(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 동기에 관한 연구: 개인, 가정, 학교의 역할』, 『직업능력개발연구』, 제8권 제2호, 47~83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인수·남재량·이승우(2006). 『고졸이하 청년층 실업실태 파악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오현석·배진현·이상은·장현진(2010).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 비교연구』, 『직업교육연구』, 제29권 제2호, 245~265쪽, 한국직업교육학회.
- 엄태영·박은하·주은수(2011).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빈곤청소년의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여향에 관한 연구: 진로장벽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1권 제3호, 197~222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은희(2003). 『실업계 고등학교 진로지도 교육의 분석』,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효남·모화숙(2014). 『특성화고졸자의 직업능력개발 경험과 취업의 질적 성과와의 관계』, 『고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788~807쪽, 한국고용정보원.
- 최수정(2007). 『중등단계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사회경제적 수준 및 학업성적과 진로성

숙변화와의 관계에 대한 구조방정식 변화모형』, 『한국청소년연구』, 제18권 제3호, 31~57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2013). 『간추린 교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Bentler, P. M., & Bonett, D. G.(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of-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 *Psychological Bulletin*, Vol.88, pp. 588~600.

Flouri, E., & Buchanan, A.(2002). “The role of work-related skills and career role models in adolescent career maturit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51, pp. 36~43.

Kline, R. B.(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NY: Guilford Press.

Lei, M., & Lomax, R. G.(2005). “The effect of varying degrees of nonnormality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12 No.1, pp. 1~27.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Vol.1, pp. 130~149.

Matsunaga, M.(2010). “How to factor-analyze your data right: Do’s, don’ts, and how-to’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ical Research*, Vol.3 No.1, pp. 97~110.

Rumberger, R.(1981). *Overeducation in the U.S. Labor Market*, NY:Praeger.

Vaden-Kiernan, N., & McManus, J.(2005). *Parent and family involvement in education: 2002-03* (NCES 2005-043). U.S.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Abstract

---

The Effects of Home Career Education on Career Satisfac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using Career Maturity Parameters

Jongmin Ra

Rhee, Ki-Jong

Career education in vocational high schools can be more effective if interactions of all the elements assumed to influence student's career decision are fully understood. However, ineffectiveness of career education brings the necessity of home career education.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among home career education, career maturity, and career satisfaction using High School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HSGES) of KRVI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home career education positively influenc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and on career satisfaction as well. Second, home career education had positive effects on all sub-scales of both career maturity and career satisfaction, except mammonism in career maturity. Such results imply that home career education can be vital for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before making career and life decisions.

**Key word** : Home career education, career maturity, career satisfaction, vocational high school

